

이화A&P 창립 1주년 기념식



11월 20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이화A&P 창립 1주년 기념식.

광고 및 홍보업계에 종사하는 모교 출신 여성 전문인들의 협력네트워크인 이화A&P(회장 낸시 최 CJ's World 대표·영문 64)가 창립 1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20일 저녁 7시 서울프레지던트 호텔 신세계홀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창립기념식에는 윤희중 모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비롯한 교수진과 김이환 아남반도체 부사장 등이 참석, 축하 및 격려사를 전달하고 이화A&P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화A&P는 모교를 졸업하고 현재 광고 홍보

분야의 현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의 모임으로 현역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의 체계적 업무 협조와 광고 및 PR 부문 강연교육 제공을 위해 지난 2000년 11월 16일 창립된 모임이다.

이화A&P는 지난 1년 동안 세계적 PR 석학 제임스 그루니 교수 초청 리셉션, APR(미국홍보공인자격) 시험준비 회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교육,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과 영화 마케팅의 위력'을 주제로 한 강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01 이화 사회봉사 대행진

이화인 걷기대회, 일일장애체험 등으로 이웃의 결식 어린이 도와

'이화인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2001 이화 사회봉사 대행진'이 지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 가운데 교내 곳곳에서 열렸다.

학생처와 총학생회, 노동조합, 총동창회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UN이 정한 세계자원봉사자의 해를 기념하고 전체 이화인이 이웃 사랑의 건학 이념을 사회현장에서 실천함으로써 이화공동체 유대감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 이번 행사는 특히 모교 사회봉사센터가 설립된 지 1주년이 되는 기념사업으로 기획됐으며 학생과 교직원 동창 등 학교의 전체구성원이 함께 참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이번 행사는 결식아동 돕기 이화인 걷기대회, 백혈병 어린이 돕기 사랑의 헌혈, 장애아동초청 이화 나들이, 일일장애체험, 결식아동 돕기 바자회 및 장터, 봉사 동아리 공연, 조선족 어린이에게 도서 보내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2001 이화 사회봉사 대행진에서는
결식아동돕기 바자회 및 장터도 함께 열렸다.

이화 사회봉사 대행진의 가장 큰 이벤트인 결식아동 돕기 이화인 걷기대회에는 모교와 담장을 맞대고 있는 대현동, 대신동, 봉원동, 북아현동 지역의 결식 어린이들을 돕고자 하는 모금 및 후원행사였다. 걷기대회에는 장상 총장을 비롯, 최명숙 총동창회장, 유제욱 노조위원장, 이조혜진 총학생회장장과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신낙균 민주당 최고위원, 안성기 유니세프 국제친선대사 등 외부인사 및 1천여 명의 학생과 교수 직원 동창 등이 참가했다.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이날 걷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은 후윗길-본관-헬렌관-도서관-기숙사-법정관-조형대-이화광장에 이르는 약 2km 50분 가량의 거리를 이화의 가을 정취를 맘껏 느끼며 함께 걸었다. 이날 행사로 950만 원의 후원금이 모금됐으며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과 함께 약 1,050만 원의 후원금이 40여 명의 결식 어린이들에게 전해졌다.



장상 총장, 최명숙 총동창회장,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신낙균 민주당 최고위원,
안성기 유니세프 국제친선대사 등이 함께한 결식아동돕기 이화인 걷기대회.